

미술은 장소 혹은 공간을 그리는 것인가? 미술은 시간을 그릴 수 없는가? 미술은 기억(시간)에 내재된 공간을 그릴 수 있고, 장소나 인물의 미래(시간)를 그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의 시간을 나 태어나기 전까지 가져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죽은 후의 머나먼 미래로 가져가 보고 싶기도 하다. 나는 고려 불화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늘 현재 이 시간이 아니라 먼 과거, 먼 미래 같은 시간이 내 그림에 개입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상적으로 축조할 수밖에 없는 머나먼 세상이 내 그림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내 그림의 시간은 중층적이고, 다층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존재하고, 존재했었던 것을 나는 그린다. 나는 부재를 그리면서 존재를 그린다.

상상해 보라. 나 태어나기 전날의 축제를. 그 축제 속에서 즐겁게 춤추던 한 여자를. 그리고 그 축제를 끝내고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한 여자를. 나는 이 전시를 통해 시간을 그리려고 했다. 심해에 가라앉아 나를 파먹던 멜랑콜리의 나날들을 조각 작품으로 만들었고, 다시 태어나는 장치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나의 사랑하는 죽은 이들을 그리려고 했고, 신의 성기를 잘라내는 축제를 즐기는 여자들의 축제를 그리려고 했다. 나는 상상을 통해, 시간을 그리면서, 동시에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나'를 그리려고 했다.